

청소년의 우울 관련 요인

이정선* · 이형실**¹⁾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Relationships of Individual and Family Variables with Adolescents' Depression

Lee, Jung Sun* · Lee, Hyong-Sil**¹⁾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Prof.,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family variables on depression among male and female adolesc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high school students who reside in Seoul. Data from 735 adolescents(342 males, 393 femal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of adolescents. Females experienced higher levels of depression than males.

Second, depression of adolescents were predicted by self-esteem, peer relations, and parent' marital conflict. Lower self-esteem, poor peer relations and higher parent' marital conflict were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depression among male and female adolescents.

Key word: 청소년(Adolescents), 우울(Depression), 자아존중감(Self-esteem), 또래관계(Peer Relations),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1) 교신저자: Lee, Hyong-Sil, 221 Heukseok-dong, Dongjak-gu, Seoul The Republic of Korea
Tel: 02-820-5397, Fax: 02-812-5311, E-mail: hslee97@hotmail.com

I.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위치에 있으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 사춘기에 시작되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적응과 더불어 앞으로의 진학, 직업선택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하는 등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고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기에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학업성적 및 입시 중심의 교육환경 등으로 인해 일반 청소년에게도 우울이 나타날 수 있다. 우울은 일반적으로 인생과 장래에 대한 비관, 불행감, 무기력, 죄의식, 무가치감 등과 같은 증상을 포함하는데, 청소년기의 우울은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과 자살, 문제행동, 그리고 성인이 된 후의 정서장애와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므로 그 심각성이 크다(Lee, 2002). 이처럼 우울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볼 때,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우울에 대해 보다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의 우울과 개인 및 가족 요인 간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 우울과 관련된 개인 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또래친구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며, 가족 요인으로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감독, 부부 갈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존중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Rosenberg, 1978).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 및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을 경우 자기를 무가치한 인물로 보며 자주 불안함을 느끼고 우울해 하며 불행하다고 느낀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우울증, 학교생활부적응, 집단괴롭힘, 비행, 폭력, 약물남용 등 여러 가지 심리 사회적 부적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Yang & Kim, 2002). 특히 청소년의 비행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의 내적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적응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다(Kang, 2003).

청소년기는 또래친구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영향력이 매우 높은 시기로서, 또래친구 관계는 스트레스와 문제에 대처하는데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며, 이는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Field, Diego, and Sanders(2001)는 적정 수준의 또래친구 관계가 없고 친구 수가 적으며 인기가 없는 청소년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가족도 청소년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은 가족에서 만족감, 행복감, 안정감 등을 얻고자 하는데,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가족생활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같은 문제를 나타낼 수 있으며, 우울 같은 심리적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모와의 관계는 자녀의 정서, 행동 발달의 기초가 된다. 청소년의 강렬한 분노나 우울 등의 내재화 문제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거부되고 버려졌다는 느낌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Cicchetti, Carlson, Braunwald, & Aber, 1987).

청소년은 부모와의 상호작용 이외의 친구, 이웃이나 사회 환경과도 폭넓은 접촉을 가지게 되며 그 영향을 받게 되므로 자녀의 활동을 인식하고 통제하는 관리자로서의 부모 역할이 중요하다. Dishion and McMahon(1998)은 부모감독을 부모가 자녀의 행방에 대해 아는 것이며, 자녀의 적응에 관심을 두고 자녀의 행동을 추적하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연관된 하나의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부모감독은 청소년의 행동문제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Park & Doh, 2001; Park, 2009).

최근 부부 간의 불화와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부갈등은 부부 당사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녀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부갈등과 불화로 인해 부모가 느끼는 스트레스, 적대감, 좌절, 무기력감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부부갈등은 자녀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Seo, 2006). 부부갈등은 자녀의 우울, 불안, 비행, 반사회적 행동 등 정서·행동적 문제와 밀접히 관련 된다(Kim, 2003).

청소년의 우울을 연구하는 데 있어 기존의 연구는 가족 요인과 개인 요인을 각각 따로 다루었으며 이러한 요인을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개인 및 가족 요인과 우울 간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의 우울에 있어서 남녀 간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자아존중감, 또래친구 관계의 개인 요인 및 부모와의 관계, 부모 감독, 부부 갈등의 가족 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우울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의 우울을 이해하고 청소년의 우울문제 예방과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가정교과의 연계성과 역할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의 우울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증가하는 부적응 행동 중의 하나는 우울이다. 우울은 청소년기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울적한 기분이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감정이다.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에서 청소년은 거의 절반 정도가 슬픔과 희망이 없음을 적어도 어느 순간에는 느낀다고 한다(Shin, 1998). 따라서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심리장애 중 우울은 임상적 우울을 가진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도 일상생활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다.

청소년의 우울은 짜증스러운 기분, 즐거움의 결여, 에너지의 저하, 미래에 대한 절망감, 과거에 대한 죄책감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비관적 생각들이다. 또한 수면장애, 식욕과 체중감소의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Shin, 1988). 청소년기 우울의 또 다른 특징은 불안, 행동장애, 주의력 결핍-과다행동장애, 물질 관련 장애, 그리고 섭식장애와 흔히 연관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의 우울은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자살, 문제행동을 일으키며, 이후 성인기 우울의 원인이 될 수 있다(Lee, 2002).

국내의 청소년 우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서 및 행동문제 연구에서 우울 증상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같은 연령의 미국 청소년과 비교할 때 모든 연령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Oh, Lee, & Lim, 1991). Shim(2001)은 나이가 많을수록, 성적이 낮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할수록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며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우울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 개인, 가정, 학교, 사회전반이라는 네 가지 환경 중에서 청소년 개인과 가족 상황에서 우울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우울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많은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Park & Doh, 2001; Ku & Lee, 2003). 그러나 이와 다른 결과를 보이는 연구들도 있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1987; Lee, 2000)에서는 성별에 따른 우울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우울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2. 청소년의 우울 관련 요인

1) 자아존중감

Maslow(1965)는 개인 적응력의 한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모든 인간은 자아존중감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충족시킨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자신을 가치 있고 유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자신을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정신 질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Beck(1967)에 의하면, 우울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인지도식(negative schema)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Rosenberg(1978)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불안과 우울 수준이 높고 낮은 성취 수준을 보이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기표현에 대한 능

력, 자기 확신, 인내력, 잠재적인 지도력, 지능과 숙련도, 좋은 인상을 주는 능력, 사회적인 기술 등의 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tein(1995)도 우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나 인식을 낮게 하므로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Lee, 2005)에서도 낮은 존중감은 우울에 수반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Yoo(1997)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보다 불안 성향이 강하고 대인관계가 좋지 않아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1994)도 남녀 청소년 모두에서 자아존중감과 우울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Hong(1993)의 연구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존중감과 우울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Lee(2005)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고등학생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고등학생보다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자아존중감과 우울 간에는 부적 관련성이 있어,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또래친구 관계

청소년은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며,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주변인의 위치에서 갈등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며 자신을 이해해주는 또래친구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또래친구에게 더욱 의지하게 된다. 원만한 또래 관계는 또래 집단에 대한 확고한 소속감을 얻게 하며 나아가 청소년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부정적인 또래 관계는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을 야기하며 비행, 우울 등의 문제행동과 부적응을 결과하게 된다(Lee, 2004).

Son(1988)은 또래친구 관계에서 낮은 인기도는 우울과 관련성이 있고 빈약한 또래친구 관계나 또래로부터의 거부 경험은 우울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특히 청소년은 가까운 친구를 잃거나 이별하는 것과 같이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 많이 노출될수록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결과를 더 많이 나타내며, 또래친구로부터 인정을 적게 받을수록 더 높은 우울수준을 보였다(Beem, Gil-Rivas, Greeberger & Chen, 2002).

Park(2000)은 우울한 집단이 비우울 집단보다 남과 어울리지 않고 또래친구 간에 인기가 없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또래친구가 없다고 느끼며 대인관계에서 소극적이고 자기비하, 대인기피증 같은 부정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또래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청소년은 우울, 불안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n & Doh, 2008; Cho & Doh, 2011).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3) 부모와의 관계

인간의 성장 발달에는 생애 초기의 경험이 아주 중요한데, 이 초기 경험 중 부모와의 관계가 성격과 행동 및 정신 병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자녀가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최초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성격은 물론 자아개념, 태도 및 행동 수행 능력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Beck(1976)은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건강한 심리적 발달과 성인기의 관계형성 능력에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보았다. Kim(1995)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수용과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유지가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한다고 했다.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우울수준이 낮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Lee, 1998; Oh, 2008).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때 자녀의 제안 및 견해를 개방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가족의 청소년이 불안과 우울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Jeon, 1993).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민주적인 양육태도 보다는 과보호를 많이 보이는 집단에서 청소년의 우울, 불안이 더 높았다(Oh, Jeon, & Chang, 1993). Kim(2001)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거부할 경우에 청소년의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을 통해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4) 부모감독

부모감독이란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뜻한다(Patterson & Stouthamer-Loeber, 1984). Baik(1999)은 직접적인 통제의 한 방식으로 부모감독은 자녀의 비행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진다고 했다. 이는 자녀에 대한 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에서의 부모는 자녀의 활동과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에서의 문제점이나 또래친구와의 싸움 등 집 밖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감독의 부족은 자녀가 비행 친구와 어울리거나 반사회적 행동에 빠져들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모감독은 음주, 비행, 약물남용, 학교에서의 문제 같은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rnes & Ferrell, 1992; Kerr & Stattin, 2000). 부적절한 부모감독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비행친구와 접하게 하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어, 결국에는 반사회적 행동을 결과한다는 것이다(Reid & Patterson, 1989). 또한 부모감독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 뿐 아니라 내면화 문제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Ko, 2003).

부모감독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힌 연구들도 있다. Park and Doh(2001)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여학생 청소년의 내면화 행동 문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감독이 내면화 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Park(2009)의 연구에서도 부모감독은 여자 중학생의 우울에만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부모감독이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됨을 밝히고 있다.

5) 부부갈등

부모 간 부부갈등은 자녀의 심리적 적응을 위협하는 주요 스트레스 요인이다(Emery, 1982). 부부갈등의 빈도가 높을수록 자녀는 스트레스와 분노, 불안정감을 경험하며 심리적인 문제가 심해진다(Cummings & El-Sheikh, 1991). 부모가 심하게 싸울수록 자녀는 분노, 슬픔, 걱정, 수치심 등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낀다(Kim, 1994). 또한 부부갈등은 가족 관계를 왜곡시키거나 가족간의 유대를 파괴시켜 자녀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Grych & Fincham, 1990).

많은 연구들은(Kim & Kim, 1996; Ryu, 2003)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Fantuzzo et al.(1991)의 연구에 의하면 언어적, 신체적 부부갈등은 자녀의 내면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갈등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우울 수준 및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Yang, 1997). Jeon(2007)의 연구에서도 부부갈등은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을 높이며, 부부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지각하는 청소년 자녀는 자신을 비난하여 자아개념이 낮아지게 되고 높은 수준의 우울을 나타냈다. 최근의 연구(Cho & Doh, 2011)에서도 부모 간 갈등이 있는 가족의 자녀는 더 많은 내면화, 외현화 문제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녀의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의 고등학교 2학년에서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를 위하여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6개 학교를 선정하여 질문지 800부를 배포하였다. 회수된 750부 중 부실 기재된 15부를 제외한 나머지 735부(남학생 342명, 여학생 39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735)

	Category	frequency(%)
Sex	Male	342(46.5)
	Female	393(53.5)
	Total	735(100.0)
School type	Classical	423(57.6)
	Vocational	312(42.4)
	Total	735(100.0)
Socioeconomic status	High	20(2.7)
	Mid-high	94(12.8)
	Middle	378(51.4)
	Mid-low	181(24.6)
	Low	51(6.9)
	Total	735(100.0)
Monthly income (won)	Less than 1 million	77(10.5)
	1-2 million	182(24.8)
	2-3 million	189(25.7)
	3-4 million	93(12.7)
	4-5 million	56(7.6)
	More than 5 million	60(8.2)
	Total	735(100.0)

2. 측정 도구

청소년기의 우울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를 수정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우울 정도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울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90였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72)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

도는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묻는 문항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고 자신에 대한 존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85으로 나타났다.

또래친구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Hudson(1982)이 제작한 Index of peer relation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친구들과 과의 관계에 관한 만족, 친구 사귀는 능력과 같은 사회적 만

족도와 유능감을 측정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래친구 관계 정도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은 또래친구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래친구 관계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90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PBI(Parent Bonding Instrument)의 14문항을 수정 재구성하여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5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는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다.

부모감독을 측정하기 위해 Kim and Kim(1995)의 척도와 Nam(1999)의 척도를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부모 감독 척도는 자녀가 외출했을 시 누구와 어디에 있고 언제 돌아오는지, 부모가 자녀의 친한 친구들을 알고 있는가에 관한 내용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5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 감독 정도가 높고 자녀에게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 감독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77로 나타났다.

자녀가 인지하는 부부갈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Grych(1992)의 CPIC(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를 Lee and Kwon(1997)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부부간의 갈등을 빈도, 강도, 위협, 안정성과 같은 여러 하위 차원으로 나누어 자녀로 하여금 각각의 차원에 대해 직접 평가하도록 고안된 척도이다. 총 5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갈등상황에서의 행동과

갈등상황 이후의 행동에 대한 10개의 문항으로 수정, 재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5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갈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갈등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경향과 우울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 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우울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개인 요인과 가족 요인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우울의 차이

청소년의 우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97, p<.05$).

Table 2. Sex Differences in depression

	Depression			t
	N	M	SD	
Male	327	26.20(2.62)	9.00	-2.97*
Female	372	27.89(2.78)	8.64	
Total	724	27.06(2.70)	8.79	

*p < .05

2.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개인 및 가족 요인의 영향

의 우울에 대한 개인 요인과 가족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개인 요인과 가족 요인이 청소년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Total		Male		Female	
	B	β	B	β	B	β
Self-esteem	-.62	-.49***	-.63	-.48***	-.57	-.47***
Peer Relations	-.12	-.15**	-.11	-.15**	-.16	-.19**
Relationships with parent	-.09	-.07	-.06	-.04	-.08	-.06
Parent's monitoring	.09	.04	-.09	-.04	-.14	-.07
Marital conflict	.19	.15**	.20	.16**	.18	.15**
<i>F</i>	99.30***		51.67***		51.33***	
<i>R</i> ²	.44		.47		.43	

**p < .01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부부갈등 그리고 또래친구 관계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44%였다.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우울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β=-.49, p<.001), 그 다음으로는 부부갈등(β=.15, p<.01)과 또래친구 관계(β=-.15, p<.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또래친구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그리고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청소년들은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자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과 부부갈등, 또래친구 관계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47%였다.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우울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β=-.48, p<.001), 그 다음으로는 부부갈등(β=.16, p<.01), 그리고 또래친구 관계(β=-.15, p<.01)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그리고 또래친구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남자 청소년들은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자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자아존중감,

또래친구 관계, 부부갈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설명력은 43%였다.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우울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β=-.47, p<.001), 또래친구 관계(β=-.19, p<.01), 부부갈등(β=-.15, p<.01)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또래친구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그리고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여자 청소년들은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에 따라 우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아존중감, 또래친구 관계의 개인 요인 및 부모와의 관계, 부모감독, 부부갈등의 가족 요인이 청소년의 우울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의 우울을 이해하고 청

소년 우울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서울시의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회수된 750부 중에서 부실 기재된 15부를 제외한 735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고등학생의 경우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 불안 같은 내면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Park & Doh, 2001; Ku & Lee, 2003)와 일치한다. Han(1996)은 성별에 따라 행동문제의 발생률과 유형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각기 다른 사회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으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공격적 행동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관대하게 받아들여지거나 묵인되는데 반해 여자에게는 내재적인 민감성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상이한 사회적인 기대와 요구가 결국 행동문제의 표출이나 유형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Oh, 2008). 따라서 청소년의 우울 같은 문제를 이해하고 예방, 치료하는데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또래친구 관계, 부부갈등이 남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더 높았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우울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Lee, 1994; Lee, 2005)와 일치하는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인 변화로 인해 예민해지고 불안정해질 수 있는 시기로서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이해와 수용의 태도를 갖는 것은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래친구 관계도 우울과 부적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또래친구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남녀 청소년은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Han & Doh, 2008; Cho & Doh, 2011)와 일치한다.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 변화와 갈등을 함께 경험하며 서로 이해해 주는

또래친구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므로 또래친구 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과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또래친구 관계를 형성하도록 부모와 학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청소년의 문제 예방과 상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또래 간의 따돌림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개입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남녀 청소년은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간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자녀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게 되면서 우울 같은 내면화 행동문제를 경험한다는 연구결과(Kim & Lee, 2002; Cho & Doh, 2011)와 일치한다. 청소년기에 부모 간 갈등이 심할 경우 가족 분위기가 불안정해져 청소년은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우울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는 청소년기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청소년 자녀에게 심리적 지지와 조언을 제공해야 하는데 부모 간 부부갈등이 심할 경우 이러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므로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Cummings & Davies, 1994). 이처럼 부부갈등은 청소년 자녀의 우울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므로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는 부부 간의 갈등을 잘 해결하고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러 선행연구(Kim, 2001; Ko, 2003; Oh, 2008)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 부모감독이 청소년의 우울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이 부모와의 관계와 부모감독보다 청소년의 우울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부모와의 관계와 부모감독이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간 관련성에서 매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을 통합적 모형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의 향상과 건전한 또래친구 관계의 형성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부부교육 프로그램 및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상담 및 가족 상담이 활

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자아존중감, 또래친구 관계, 가족관계와 관련된 내용은 현재 청소년의 이해, 가족의 이해 단원으로서 가정교과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정교과가 청소년의 우울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과 교사는 이러한 연계성을 인식하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가족관계 및 또래친구 관계 증진을 위한 방법 등을 실제 수업에 적극 포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가정과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다양한 교수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가정교과가 청소년의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의 적응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중심교과로 자리매김하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전체 청소년 집단의 결과로 일반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 외에도 근로 청소년과 보호기관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 집단과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청소년 우울의 차이를 살펴보고, 개인 및 가족 요인이 청소년의 우울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우울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청소년의 개인과 가족 요인이 청소년의 우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파악한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과 부모의 원만한 가족 관계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또래친구 관계의 형성을 통해 청소년의 우울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청소년의 우울을 이해하고 청소년의 우울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가정과 교육의 기초 자료로 이용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Baik, Y. W. (1999). *A study on the effects of family on adolescents' delinqu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Barnes, G. M., & Farrell, M. P. (1992). Parental support and control as predictors of adolescent drinking, delinquency, and related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4), 763-776.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 disorders*. I Madison, C. T.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eem, M. R., Gil-Rivas, V., Greenberger, E., & Chen, C. (2002).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nd depressed mood : Risk and protection within and across social contex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 343-357.
- Cha, C. Y. (1999). *The effects of expressed emotion on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Cho, J. Y., & Doh, H. S. (2011). Pathways from interparental conflict to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through maternal support and control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Child Studies*, 32, 15-34.
- Cummings, E. M., & Davies, P. (1994). *Children and marital conflict: The impact of family dispute and resolution*. New York: Guilford.
- Emery, R. E. (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92, 310-330.
- Field, T. Diego, M., & Sanders, C. (2001). Adolescent depression and risk factors. *Adolescence*, 36, 491-498.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Han, M. H. (1996). *Study on stress, perceived social support,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Hong, J. H. (199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ve predisposition and self-concept of adolescent girl student*.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Han, H. A., & Doh, H. S. (2008). The effects of family risk factors, ego-resilience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1), 87-101.
- Jeon, G. Y. (1993). *The influence of adolescent-perceived family*

-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and family system type on adolescent adjust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buk University, Daegu, Korea.
- Jeon, J. O. (2007). *The effects of husband-and-wife conflicts on peer-relationships among juveni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ung University, Busan, Korea.
- Jung, M. J. (2005). *Marital conflicts between parents, adolescent's self-esteem and school mal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Buchun, Korea.
- Kang, S. K. (2003). Analysis of influence factor on the self-esteem and social relation of adolescents' attitud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3), 155-180.
- Kerr, M., & Stattin, H. (2000). What parents know, how they know it, and several forms of adolescent adjustment: Further support for a reinterpretation of monito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3), 366-380.
- Kim, S. K. (1987). *Study on depressive predisposition of high school students and relationship with the perception on their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self-concep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 M., & Lee, M. S. (1993). Effects of family structure and parental conflict on adolescents'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2), 210-215.
- Kim, S. H. (1994). *Family and marital relationships,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A. K. (2001). Social behavior in children and early adolescents relationships to communication with parents, self-esteem, and depression. *Journal of Child Studies*, 22(3), 271-285.
- Kim, Y. H., & Lee, J. M. (2002). The influence of parent's conflict on children's and adolescent's self-esteem and maladjustment. *The Journal of Play Therapy*, 6, 95-114.
- Ko, J. J. (2003). The Effects of the individual and family relational variables perceived by adolescents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7), 121-143.
- Ku, M. H., & Lee, Y. H.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fears and 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16(1), 341-363.
- Lee, Y. J. (1994). *Relationships of depression, anxiety with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J. D., & Kwon, Y. O. (1997). A validation study on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Journal of Child Studies*, 18(1), 65-80.
- Lee, J. S. (1998). *Study on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in childhood and depression i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Kangneung, Korea.
- Lee, E. A. (2000). *Adolescents'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maladjustment according to family related variab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University, Kwangju, Korea.
- Lee, E. S. (2002). *Construction of a structural model about adolescents' alienation,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Lee, Y. S. (2004). *Individual variables, family and school environmental variables that affect victimization by peer aggression among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 Lee, G. M. (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attitude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their self-esteem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Catholic University, Daegu, Korea.
- Lee, K. W. (2005). *The influence among the types of parent-adolescents communication perceived by the adolescents, self-esteem and depression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University, Kwangju, Korea.
- Lee, G. E. (2008). *Study of the influences that parenting behavior of divorce family adolescent's adap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Maslow, A. H. (1965).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 Harper & Row.
- Min, H. Y. & Kim, K. H.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onflict and child-rearing and school-aged children's depression in low income family and non-low income family,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 Association*, 25(6), 33-41.
- Nam, H. M. (1999).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family environment, self-control and friend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problem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H. & Kim, S. H.(1996). *A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and juvenile delinquenc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Oh, D. J., Jeon, S. I., & Chang, H. I. (1993). A series of studies to establish psychiatric screening test for conscripts: A study of the influences of parental rearing on the psychopathology of young men.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2(6), 896-903.
- Oh, Y. K. (2008). *Effects of individual psychology, family environment and social environment factors on adolescents' behavior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K. W. (2009). *Study on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depression: Focusing in gender differenc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E. J. (2000). *The relation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depression and school adap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 Park, J. K. & Doh, H. S. (2001). The effects of maternal monitoring and information sources of maternal knowledge on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of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 129-140.
- Patterson, G. R.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Castelia Publishing Company.
- Reid, J. B., & Patterson, G. R. (1989).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r pattern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ersonality and aggress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3, 107-119.
- Rosenberg, F. R. & Rosenberg, M. (1978). Self-esteem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 279-291.
- Ryu, K. H. (2003). Family-related variables affecting adolescents' school life mal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12), 147-168.
- Seo, C. R. (2006). *The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individual psychological variables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Shim, N. C. (2001). *Study on depression of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am University, Kwangju, Korea.
- Shin, A. J. (1998). *A study on depression and escape from self in juveni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Shin, J. E. (1999). *A study on the psychosocial factors affecting of adolescent's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Son, H, J. (1988). *A study on the relation of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mong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Yang, D. G. (1997). *Effects of interparental conflict and social support on adolescent depression and delinquen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Yang, J. K & Kim C. K. (2002). Relationships among delinquent risk factors, protective factors and recidivism of juvenile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0(2). 101-121.
- Yoo, H. K. (1997). *Psychological factors governing juvenile delinqu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Yoon, S. J. (2003). *The relationships among stress,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국문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인 요인과 가족 요인이 청소년의 우울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서울시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8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735부(남학생 342명, 여학생 393명)의 설문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우울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또래친구 관계, 부부 갈등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우울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또래친구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그리고 부부 갈등 정도가 심할수록 청소년은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또한 남자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부부 갈등이 심할수록, 또래친구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였고, 여자 청소년도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또래친구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부부 갈등이 심할수록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문접수일자: 2012년 10월 23일, 논문심사일자: 2012년 10월 25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12월 8일